

設 問 調 查

農協農藥

개별의상구입절차 간접화약

農藥使用에 대한 農民의 意識

경기도 농림국 농산과 식물방역계장 柳 島 馨

경기도에서는 농약사용에 대한 농민의 여론과 불편사항을 조사하여 농약수급 및 병충해방제 사업에 활용코저 지난 7월 25일~30일 사이에 농민 2,000명을 대상으로 12문항에 걸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방법은 군당 2개면 4개부락을 대상으로 부락당 25명씩 무작위로 선정하여 설문지에 의한 간접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내용은 정책사업으로 공급하고 있는 수도용 농약에 국한시켰다.

조사결과 농약에 대한 농민의 의식과 농약을 이용한 화학적 병충해방제에 대한 농민의 인식이 일반적으로 생각 하는것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었으나 아직도 농약을 구입할때 자기눈에 뿌릴 농약을 사전에 선택하지 못하고 농약 판매소에 가서 관리자에게 「○○○병 혹은 층에 뿌릴 농약을 주시요」 하는 것이 22.7%나 되었고, 행정 및 지도기관의 권유나 이웃농가가 방제하는 것을 보고 따라서 피동적으로 방제하는 것이 33.1%나 된다는 것은 수도작 병충해 방제도 완전히 정착 되었다고는 생각 할수 없을것 같다.

다음 내용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요약한 것으로 식물방역사업에 관련되는 농약업체 및 행정, 지도 관련 공무원의 업무수행에 참고가 될까하여 본인 나름대로 서술하여 보았다.

것으로 본다.

수도용 농약의 구입처는?

- 농협에서 구입—85.2%
(단협 : 47.3%, 부락판매소 : 37.9%)
- 시판상에서 구입—12.6%

수도용 농약은 농협에서 구입이 85.2%로 대부분 농협농약을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금년도 본도에서 공급한 농약 1,604% 중 농협농약 공급실적이 1,002%으로 63%를 점유하여 농협농약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나 앞으로 농민의 자율방제유도와 농약선택기회 확대 및 농약제조 회사와 판매상의 대농민 홍보강화와 신 농약 개발 유도틀 위해서라도 농협농약의 공급비율을 낮추고 시판상을 통한 공급비율을 50%선 이상으로 조정되는 것이 바람직 할것으로 생각 된다.

**농협공급비율 점차 낮추고
현장판매수당 현실화 필요**

또한 농민들의 농협농약 구입사용시 47.3%가 단협판매소에서 구입하였으며 37.9%를 부락현장 판매소에서 구입 사용 한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영농회장단에 대하여 판매 수수료 및 수당지급 등의 '인센티브'를 현실화하여 준다면 부락판매소를 통한 현장공급체계가 정착 될수 있을

농민이 농약을 구입 할때?

- 농약의 상표명을 대고 구입—64.0%
- 병해충의 이름을 대고 구입—22.7%

농민들이 농약을 구입할때 농약의 상표명을 대고 구입하는 것이 64.0%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병충해의 이름을 대고 구입하는 것이 22.7%나 되는 것은 농민들이 아직도 농약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것으로 볼수있어 행정 지도기관에서 농약사용법에 대한 교육과 농약업계에서도 농약의 약리작용및 사용법에 대한 대농민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농민들의 농약선택에 대한 사전지식을 충분히 보급하여야 할 것이다.

**64%가 상표명으로 농약구입
판매 관리자 정기적 교육필요**

또한 농협 및 시판 농약판매관리자에 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사용상의 잘못으로 농민들이 피해를 보는일이 없도록해야 함은 물론 농약의 약효에 대한 농민의 불만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농약사용상의 민원을 줄이도록 노력하여야 할것이다.

농협 농약을 구입할때 ?

- 희망품목을 구입—60.0%
- 희망품목이 없어 다른 품목으로 대체 구입16.0%

농민들이 농협에서 필요로 하는 희망품목을 살수있었다가 60.0%로 대부분 농협에서 필요로 하는 농약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 났으나 다른 항목의 설문에서 「필요로 하는 농약중 농협에 전품목 다있다」가 32.6%에 불과 했다.

농협취급품목의 다양화 절실

또한 한두 품목은 없다가 64.7%로 나타난 것은 앞으로 농협농약의 취급품목이 늘어나야 할것이고, 원예용 및 제조제도 접진적으로 확대 취급되어야 할것 같다.

농협에 없는 희망농약 어떻게 구입하는가 ?

- 시판상에서 구입—54.3%
- 다른 농약으로 농협에서 대체구입—27.7%
- 기다렸다 농협에서 구입—16.2%

농민들이 구입하고자 하는 품목이 농협에 없을때 시판상에서 구입하는 것이 54.3%로 반을 넘고 있으

나 기다리거나 혹은 다른 농약으로 농협에서 구입하는 것이 43.9%나 되고 있다.

신뢰할 만큼 자질향상 돼야

이는 농협농약에 대한 농민의 인식이 높은 것으로 볼수있어 농협농약의 취급품목이 확대 되고 균형재고 유지 및 농약 취급자의 전문성이 높아진다면 농민들의 농협 이용은 더욱 늘어날 것이다.

농협농약 구입 및 대금 지불방법 ?

- 공동으로 외상구입—46.4%
- 개별적으로 외상구입—11.6%
- 공동으로 현금구입—8.6%
- 개별적으로 현금구입—26.8%

농협농약 구입시 공동구입이 55.0%로 반을 넘고, 개별구입이 38.4%였다.

개별 외상구입절차 개선토록

농약대 지불방법은 외상구입이 58.0%이고, 공동외상구입시 12월 15일까지 무이자 외상공급하고 있음에도 현금구입이 35.4%로 나타나는 것은 농촌경제 사정이 좋아졌다

는 일면도 있으나 개별적으로 외상 구입시 2명의 보증인 설정등 절차상 번잡의 농민여론이 있으므로 외상구입에 대한 제도개선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시중 농약상에서 농약 구입시 대금 지불방법?

- 현금으로 구입—59.8%
- 외상으로 구입—37.1%

시중 농약상에서 농민이 농약구입시 농약대 지불방법은 농협농약과는 반대로 현금구입이 59.8%이고, 외상구입이 37.1%를 나타내고 있다.

시판외상은 신용만으로 가능

농민들이 시중 농약상에서 농약을 외상으로 구입할때에는 보증없이 신용으로 거래하여 농협에서 외상구입 하는것 보다는 간편한 편이므로 농협농약의 외상구입 절차가 번잡하다는 일부 농민들의 여론이 있다.

농민이 농약을 살포하는 때는?

- 병해충이 발생할것을 예상하고 사전 방제—64.8%

- 행정및 지도기관의 권유로 살포—13.9%
- 병해충이 발생한것을 보고 살포—13.5%
- 이웃농가가 약을 뿌리는 것을 보고 살포—5.7%

농민들이 병해충이 발생할것을 예상하여 능동적으로 사전 예방위주의 방제를 하는 것이 64.8%나 되는 것은 수도작의 병충해 방제가 어느정도 정착이 되었다고 볼수 있다.

자율방제 전환은 아직빨라

그러나 행정및 지도기관의 권유로 방제하는 것이 13.9%, 병해충이 발생한것을 보고 방제 하는 것이 13.5%, 이웃농가가 약을 뿌리니까 따라서 방제하는 것이 5.7%나 된다는 것은 아직도 병충해 방제를 완전히 농민자율방제로 맡기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농민의 농약선택 동기?

- 행정·지도기관의 교육과 지도로—61.1%
- TV·신문·라디오등의 매스컴을 통해서—16.4%
- 이웃농가의 권유로—14.4%

업계의 對농민홍보 더욱필요

농민이 농약을 선택하는 동기가

□ 농약사용에 대한 농민의식 □

행정 및 지도기관의 교육과 지도로 선택하는 것이 전체의 61.1%나 되는 것은 농약공급이 관주도로 이루어진다고 볼수있어 앞으로 농민자율방제를 위해서는 농약업체의 대 농민 홍보활동이 더욱 강화 되어야 할것으로 본다.

주요 사용하는 농약의제형

- 유제 및 액제—63.9%
- 입제—26.3%
- 분제—8.0%

농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제형은 유·액제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나 입제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고 분제의 소비확대를 위해서는 미스트기와 파이프다스타를 지원하여 확대 공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농협농약 구입시 불편한점

○농협농약의 외상구입 절차가 번잡스럽다.

○농협에 원예용농약 및 농민 기호농약이 부족하다.

○농약구입시 물량의 다소를 막론하고 부락까지 수송하여 주기 바란다.

○약효가 좋은 새로운 농약을 개발하여 공급하기 바란다.

○농약사용시기 전에 부락에 소요되는 전량을 현장공급하여 주기 바란다.

○부락판매소에 농약진열장을 설치하여 주기 바란다 등으로 이외에도 상표명이 외래어로 표기되어 부르기 어렵고, 라벨이 잘 떨어져 오용의 우려가 있고, 빈병을 유상으로 회수하여 달라는 등 일반적인 사항이 대부분이었다.

정책아닌 자체사업으로 전환

끝으로 수도작의 병충해 방제도 앞으로는 농민자율방제 체제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정책사업 농약도 농협단위조합에 의한 자체사업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며 시판농약의 공급비율도 50%이상으로 높아 져야 할 것이다.

그러면 농약업체의 판매경쟁이 치열하여 새로운 농약개발과 상품의 PR이 더욱 활발히 전개될 것이므로 결국 농민들은 농약의 선택기회가 높아져서 좋은 농약을 적절한 가격에 구입하여 효율적인 방제를 할수 있어 농가소득증대는 물론 식량증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